양림동 근대 속으로 예술여행 떠나볼까

남구관광청 내달부터 시작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공예·요리·조각·무용 등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가족 코스·연인 코스 구성 펭귄마을 정크 아트 만들고 한희원미술관 판화 그리고 오웬기념관서 홍차 피크닉



남구관광청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는 '근대예술여행' 코스 중 '향기 나는 양림충견상'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양림148'카페와 입 구에 설치된 충견비 캐릭터 동개비.

광주 양림동 미광의상실은 지난 1970년 대부터 양장점이었다. 의상실이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대신 청년 기획자가 둥지를 틀면서 색다른 공간으로 변신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간판 등 외관은 그 대로 살리고 '근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의 상, LP, 낡은 액자 등 소품 등을 갖춰 '시 간여행'을 떠날 수 있게 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물 창고 양림동엔 세 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근대 유산도 많지만 미광의상실처럼 눈 밝은 이들이 새 롭게 '발견' 한 곳,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 롭게 문을 연 갤러리, 카페 등이 함께 어우 러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광주 남구관광청이 4월부터 '근대 예술여 행'(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30 분~오후 6시)을 시작한다. 양림동에 흩어진 문화 유산을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 공 간을 찾아내 그 곳에 거주하는 예술인과 함 께 공예, 요리, 조각, 무용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예술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타깃층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 족코스'와 '연인 코스'로 나눠 프로그램을

◇가족 코스=전주 한옥마을에 한복이 있다면 양림동은 근대 양장과 양복이다. 가족 코스, 연인 코스 모두 출발은 '미광의 상실'이다. TV 만화와 영화 주인공의 드 레스와 턱시도를 빌려 입고 시간여행에 나 선다. 빨강머리 앤이나 오드리 햅번이 입 었을 법한 퍼프 소매 드레스를 빌려 입을 수 있고 브로치, 모자 등 장신구도 갖출 수 있다.

양림동 충견비와 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

터 '동개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카페 '양 림 148'에서는 충견을 재현한 석고 방향제 를 만들어보는 '향기나는 양림 충견상' 프 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야기 배달부 동개 비 카페'에서는 동화구연과 페이퍼 토이 체험으로 스토리 텔링을 하고 핫 플레이스 펭귄마을에서는 정크 아트를 만들어 기증 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515 갤러리'에서는 나무로 티티새를 직접 만들어 보는 '티티새 로빈 이야기'가 진행되며 문화 놀이터 '날날놀'에서는 '양 림빅마마의 어린이 오븐 쿠킹 클래스'가 진행된다. 그밖에 '윤회매 문화관'에서는 차와 이야기, 바라참 공연이 어우러진 '윤 회매 찻잔에 잠기다'가 준비돼 있다.

◇연인코스=연인끼리라면 좀 더 로맨 틱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이장우 가옥 맞은편에 자리한 '갤러리 수'에서는 양림동 생태문화자원인 호랑가 시나무를 전통 자수로 놓고 나만의 테이블 매트를 만들어 보는 '식탁의 품격 양림 자 수'를 진행한다.

윌슨 선교사 사택과 오웬기념각의 야외 풀밭에서 선교사들의 차 문화를 배우는 '양림 홍차 피크닉'도 놓치기 아까운 프로 그램이다. '갤러리 수'에서 직접 만든 테이 블 매트를 깔고 자연과 함께 홍차 전문점

▶기본대관기간: 7일(일주일 단위)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M갤러리 대관안내

▶개관시간: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메종드 떼'에서 제공하는 홍차를 시음하 는 야외 피크닉이다.

'갤러리 늘'에서는 양림동 근대건축모 형과 호랑가시나무를 나전으로 붙여서 손 거울을 만들어보고, '한희원 미술관'에서 는 미술관의 정취를 느끼며 서양화와 판 화를 그려본다.

그밖에 '아리네'에서는 '댄싱 위드 모던 커플' 프로그램을 통해 근대 동·서양 댄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사직동 통기타 라이브카페 '트윈폴리오'에서 사직공원의 옛 모습을 보고, 동요를 듣고 함께 연주해 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희망자는 '남구관광청'홈페이지(www. visityangnim.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 다. 각 공간별로 시간과 참여인원이 정해 져 있다.

이와 함께 정기 투어도 역시 4월부터 진 행한다. 월~목요일은 3회(오전11시·오후 2시·4시), 금~일요일은 4회(오전10시·11 시, 오후 2시·4시) 펭귄마을에서 출발한다. 수피아홀~커티스 메모리홀~호랑가시 나무~사진전망타워 등으로 이뤄지는 B코 스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희원미술관, 이장우 가옥, 양림교회 등으로 이어지는 A 코스는 1시간 30분이다. 문의 062-607-23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환타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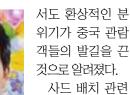
한한령 뚫고…정우범 작가 中초대전 성료

2개월간 120여점 전시 인기 아트상품·순회 전시 협약도

지역 출신 정우범(사진) 수채화가가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중국 전시에서 호응을 얻어 주목 받고 있다.

정 작가는 최근 상하이 인근 우시 피닉 스예술궁전미술관에서 2개월간 초대 개 인전(1월7일~3월16일)을 통해 대표작 '환타지아' 시리즈 등 120점을 선보였다. 미술관은 중국 최대 미술 재료 생산 및 유 통기업인 평황(봉황)그룹이 운영하는 복 합문화공간으로, 정 작가는 이례적으로 항공권 등 전시비용 일체를 지원받았다.

'환타지아'는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채집한 야생화를 반 추상기법으로 작업한 작품으로, 화려하면



위기가 중국 관람 객들의 발길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서도 전시가 인기 를 끌자 미술관측은 정 작가와 아트상품 개발, 중국 순회 전시 지원 등에 관한 협 약을 맺어 눈길을 끈다. 협약에 따라 정

/김용희기자 kimyh@

서 오는 5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작가는 "한한령 때문에 전시를 제 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놀랐 다"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 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작가는 베이징 798지구 피닉스갤러리에

광주시립미술관 '진경매화'전

내달 9일까지 홍매화 그리기 우수작 42점



다"고 밝혔다.

정선휘 작 '봄을 깨우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10일 열었던 중외공원 홍매화그리기 행사 결과물을 전시한다. 4월9일까지 '시민과 함께하 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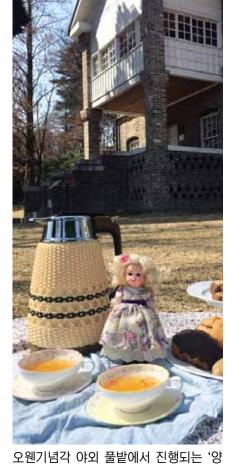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화가들이 그린 작품과 아 마추어 작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경매화회(회장 황순칠) 작품 12점, 미술관 문화센터회원 작품 11점, 광주예고 학생 작품 15점, 미술대학 학생 작품 4점 등 총 42점을 선보인다.

황순칠 작가는 현 시대를 빗댄 '탄핵 홍매'(彈劾紅梅) 작품을 작업했다. 한개 꽃잎을 강조해 화폭을 넘칠듯하게 표현 하며 희망찬 세상을 기원한다.

박구환 작가는 노란 바탕에 분홍 꽃잎 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는 '만개하여' 를 출품했다. 매화숲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정겨운 분위 기를 연출했다.

정경래 작가가 그린 '매화와 어머니'는 노란 두건을 쓴 여성 노인을 매화와 동일 시하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았다.

오광섭 작가는 물감을 두껍게 칠해 질 감미를 부여한 '홍매'를, 이선복 작가는 수묵으로 매화향기를 묘사한 '매향 바람 에 날리다'를 전시한다. 문의 062-613-/김용희기자 kimyh@



림 홍차 피크닉'.





국제보청기

를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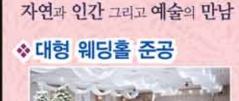
본 점 서석동남동성당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희연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